

TO: 박영숙 이사장님 (F: 031-816-2845)

FROM: 한국여성재단 김정린 팀장 (T: 02-595-6364)

RE: First Lady 원고의 건

MESSAGE:

이사장님,

즐겁고 유쾌한 일이 많아서 더운 여름을 보다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원고 잘 받았습니다. 전자 화일로 만든 원고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원고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8월 11일(월)까지 보내주시면 되구요.

매번 어떤 내용으로 쓰실 지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하면서도 늘 이사장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어렵네요. 아마도 믿는 마음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이 원고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쓰셨던 원고모음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김정린 드림

<First Lady 원고 - 8월>

국민소득 2만불시대와 여성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우리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7월 1일에서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설정하고 기념식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 제8회 여성주간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간으로서 주제는 '양성평등! 새로운 문화의 시작입니다'이다. 7월 4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기념식에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이 자리를 함께 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헌신한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는 대통령의 치사가 있었다. 대통령은 치사에서 다음달 있을 8·15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국정목표로서 공식 제기하기로 되어있는 '2만달러시대를 위한 국가개조론' 구상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를 '신(新)성장 전략'의 핵심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하여 여성들의 박수갈채를 받은 바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취임 직후 참석한 학군장교 임관식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그 동안 남성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사관학교에서 신선한 여성 참여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여성 생도들이 수석으로 졸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변화를 실감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각계에서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피력한 것은 여성들에게 크게 고무적이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높이기 위해 현재 48%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55%까지 끌어올려서 기술혁신과 시장개혁, 문화혁신 그리고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의 도약과 지방화 전략을 꾸준히 실행해 낼 뜻을 밝힘으로 여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정치와 행정분야의 여성참여가 저조하여 OECD가입국가 중 '여성의 권한최도'가 최하위인 것을 모를 리 없다.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은 4.8%의 5급 이상 여성고위공직자 비율을 3년 이내에 10% 수준까지 늘려갈 것과 여성들이 정치와 행정을 비롯한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이미 권리 차원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여성의 일자리를 50만 개를 창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녀교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을 사회적인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켜서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풍토를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점을 확실히 표명하였다.

이 나라의 여성들은 금번 여성추간의 대통령의 고무적인 치사를 통해 21세기 양성평등의 시대를 열어 가는 일을 밝게 전망하게 되었고 국민소득 2만불시대 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기여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데 힘이 되었다.

이러한 고무적인 분위기의 바람은 경제발전의 주역인 기업 측에서도 불어오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실현가능성을 짐치게 하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삼성그룹의 이 회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보면, 이 회장이 여성인력을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여성을 배려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데서 기업의 선진화된 기상도를 감지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여성인력을 안 쓰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 '여성 스스로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여성인력 활용은 제2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다'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에 참여해야 한다' '모성애의 위대함도 그렇지만 여성의 감성, 꼼꼼함 등은 여성이 가진 대단한 강점이다'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다 벤처 또는 정보기술산업에서 성공한 여성들이 늘어날 것'도 여성의 창의적이고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된다' '여성인력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 '입사나 승진 시 불이익을 없애는 것은 물론 능력 있는 여성들을 과감하게 임원으로 발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고 했다. 이제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꿈은 여성들에게 넘어왔다. 대통령의 장밋빛 정책 제시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인력으로서의 손짓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여성들이 직면한 도전이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부가, 산업계가 그리고 사회가 무엇을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체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은 70년대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압축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빚었던 악몽들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양성평등의 새로운 문화의 시적을 알리는 신호는 울렸다. 여성들 자신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여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